Korean J. Org. Agric.
Volume 28, Number 1: 59-68, February 2020
http://dx.doi.org/10.11625/KJOA.2020.28.1.59

ISSN 1229-3571 (Print)
ISSN 2287-819X (Online)

A생협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

김 호**

An Analysis on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 Hansalim Consumer Cooperatives

Kim, Ho

This study analyzed and suggested management situations and improving issues on a consumer cooperatives which has supplie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year 2002. Indices of management analysis are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profitability ratio. Management Stability ratio indices are debt ratio, net worth ratio, fixed ratio and current ratio. Management activity ratio ones include fixed assets turnover and net worth turnover. And profitability ratio is showed through return on investment, net return on sales and return on equity. In order to analyze these indices, financial statements after the closing entires are used each year.

Key words : *management situation, consumer cooperatives, Indices of management analysis, Management Stability ratio, Management activity ratio, profitability ratio*

Ⅰ. 서 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생협과 대형유통업체, 학교급식, 전문판매점 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 학교급식을 통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협의 공급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있는 구입처 비중을 보면 학교급식 39.0%로 가장 많고 대형유통업체 29.4%, 친환경전문점 9.8%, 생협 9.4%, 직거래 7.3% 등이었다(aT, 2018). 생협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며, 생협의 매출 증가율 둔화와 합리적 경영의 미흡, 친환경

* 이 연구는 2018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hokim@dankook.ac.kr)

유기농산물 판매시장의 경쟁 심화,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증가, 1인 가구 및 외식의 증가에 따른 가정에서의 조리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선행연구로서, Kim(2012, 2018)은 각각 생활협동조합과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 및 친환경농산물 가공 생산자조직에 대해 연도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경영분석을 하였다. 그리하여 투자 및 경영활동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 생협을 선정하여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경영안정성과 경영활동성, 수익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영의 지속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A생협)의 경영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A생협은 2002년 말에 지역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총매출액이 약 119억 원이고 조합원 수는 약 2만여 명이다.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개년으로 하였다. A생협의 연도별 재무제표를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임직원과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였다.

Ⅱ. 경영분석 지표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지표는 경영안정성으로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유동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영활동성의 구체적인 지표는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등으로 하였다. 수익성으로는 총자본이익률과 순매출이익률, 자기자본수익률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영안정성(stability ratio) 분석에 있어, 부채비율(debt ratio)은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타인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며 산식은 (부채총액/자기자본액)×100이다. 또 자기자본비율(net worth ratio)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본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산식은 (자기자본/총자산)×100이다. 고정비율(fixed ratio)은 자본의 유동성을 나타내며,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산식은 (고정자산/자기자본)×100이다.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지표이며, 산식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다.

그리고 경영활동성(activity ratio)에 있어, 고정자산회전율(fixed assets turnover)은 기업의 자본 이용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고정자산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고정자산에 투자된 기업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나타내며, 비율이 낮을수록 설비 운용의 비능률 또는 고정자산에 대한 과대투자로 고정비가 증가하여 수익성과 유동성이 저하됨을 나타낸다. 산식은 (순매출액/고정자산)×100이다. 또 자기자본회전율(net worth turnover)은 자기자본의 회전속도를 나타내며, 자기자본의 활용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익성 증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자

기자본회전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외상매출의 과대현상이나 자기자본의 과소현상이라는 재무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산식은 (순매출액/자기자본)×100이다.

또한 수익성(profitability ratio)을 나타내는 지표는 총자본이익률(return on investment)과 순매출이익률(net return on sales),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등이 있다. 총자본이익률은 투자된 총자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산식은 (당기순이익/순자본)×100이다. 순매출이익률은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낸 것이고, 산식은 (당기순이익/매출액)×100이다. 자기자본수익률의 산식은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이다(www.kipf.re.kr; Kim, 2012, 2018).

Ⅲ. 경영실태 분석

A생협은 2002년 11월에 500명의 조합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말 현재 조합원은 21,032명이다. 2003년에 총 공급액 약 6억 5천만 원에서 2018년 말 현재 총 공급액은 119억 1,186만 원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8.1%이다(Table 1). 그런데 2012년 총 공급액 약 88억 원에서 2013년에 약 52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전체 공급지역 중 일부 지역이 분화하여 새로운 별도 생협으로 독립했기 때문이다(Fig. 1).

Table 1. Changes of total sales

(Unit: million won)

	2003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Total sales	646	2,498	6,882	8,059	9,451	11,451	11,912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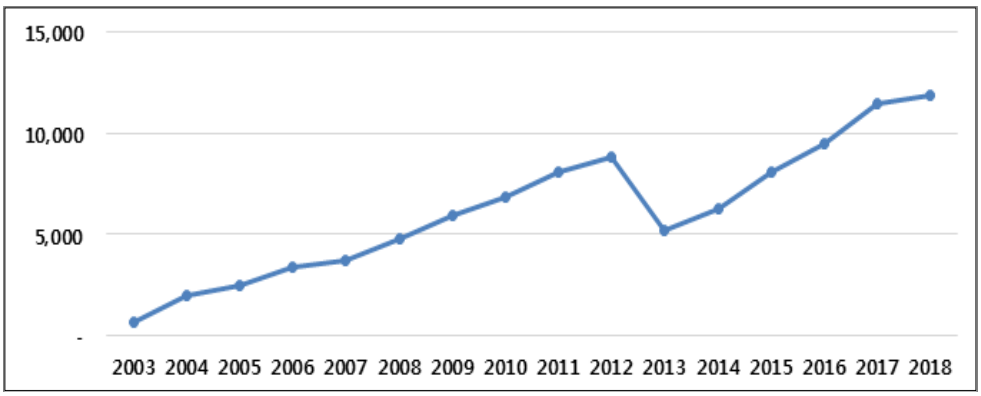

Fig. 1. Changes of total sales(2003~2018).

1. 경영안정성

경영안정성에 관한 지표는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유동비율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 생협은 일부 지역의 분화로 인해 2012년에 부채비율이 106.9%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이 각각 48.3%와 81.5%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2013년 꾸준히 회복되어 부채비율의 일반적인 표준비율인 100% 이하로 낮아졌고, 자기자본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200% 이상의 유동비율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2014년(169.5%)을 제외하고 200%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유동비율을 제외하고 경영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hanges of stability ratio

(Unit: %)

	2003	2005	2010	2012	2015	2016	2017	2018
Debt ratio	119.5	91.3	40.8	106.9	37.4	43.2	44.1	34.0
Net worth ratio	45.6	52.4	71.0	48.3	72.8	69.8	69.4	74.6
Fixed ratio	150.8	99.3	84.0	87.1	62.8	55.4	60.1	62.8
Current ratio	58.0	104.4	139.1	81.5	199.5	203.2	190.6	209.3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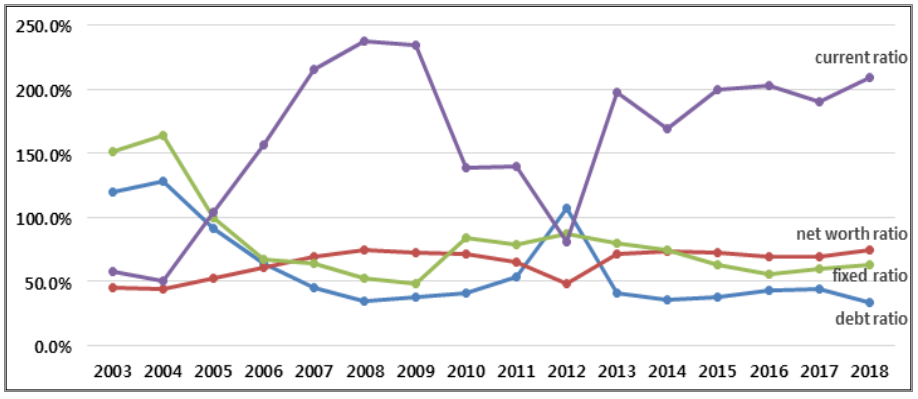

Fig. 2. Changes of stability ratio(2003~2018).

2. 경영활동성

경영활동성 지표인 고정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013년도에 별도 생협으로 분화로 인해 고정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즉 각각 2012년에 1,279.8%와 1,114.3%에서 2013년에는 610.5%와 490.7%로 감소된 것이다.

고정자산회전율은 고정자산에 대한 순매출액을 나타낸 것으로서, 2013년에는 고정자산에 비해 순매출액의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자본회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순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므로, 지역분화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4년 이후에 고정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이 2006년~2009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Table 3. Changes of activity ratio

(Unit: %)

	2003	2005	2010	2012	2015	2016	2017	2018
Fixed assets turnover	510.1	1,075.3	718.7	1,279.8	854.6	970.3	959.8	868.9
Net worth turnover	769.3	1,211.8	603.6	1,114.3	536.9	537.6	576.6	545.9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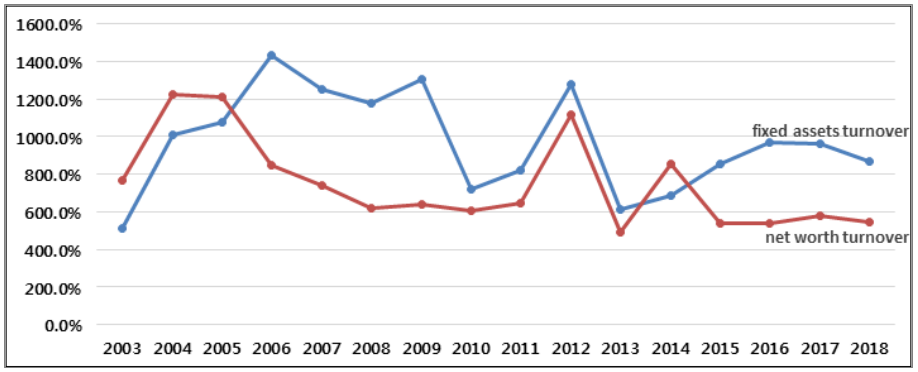

Fig. 3. Changes of activity ratio(2003~2018).

3. 수익성

조사대상 생협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본이익률과 순매출이익률, 자기자본수익률은 2005년과 2009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8년 등 6개년 동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Fig. 4, Fig. 5). 특히 2005년에 각각 -11.7%와 -2.0%, -21.3%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자기자본수익률의 표준편차는 0.0686으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순매출이익률은 0.0081로 가장 낮았다.

생협의 특성상 과잉투자나 특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무리한 투자와 경영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유통업으로서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나 소비자의 불신이 발생되는 특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수익성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기 쉽다. 그렇지만 2016년 이후, 2017년과 2018년의 지표 하락 추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

(Unit: %)

	2003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S.D.
Return on investment	1.3	-11.7	1.0	1.9	1.8	0.4	-0.5	0.0404
Return on equity	2.8	-21.3	1.3	4.7	4.7	1.0	-1.3	0.0686
Net return on sales	0.4	-2.0	0.2	0.9	0.9	0.2	-0.2	0.0081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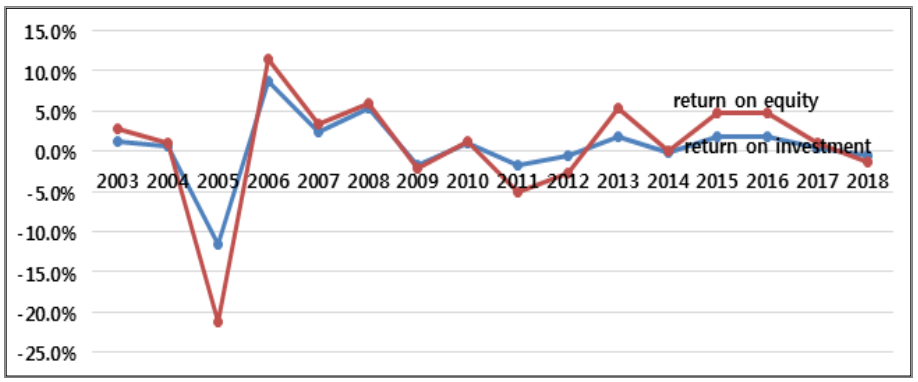

Fig. 4.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Return on investment and Return on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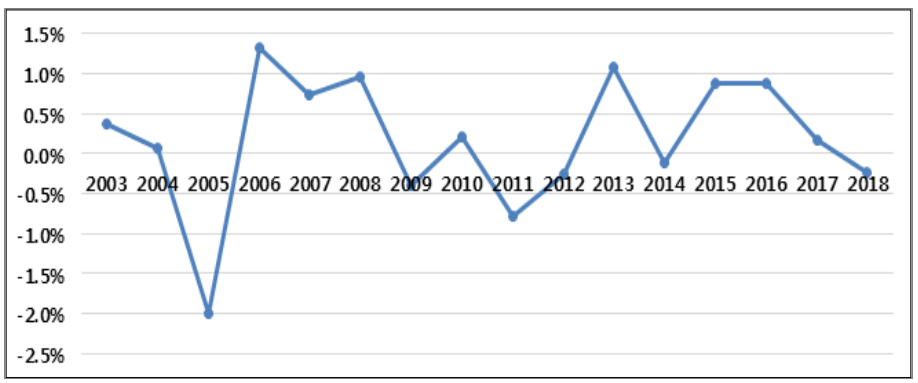

Fig. 5. Changes of profitability ratio(Net return on sales).

한편 Table 5는 조사대상 생협의 마진율(비용+이윤)을 나타낸 것이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의 평균마진율(총매출-매출원가)은 18.1%이었다. 2008년과 2018년의 마진율이 각각 19.1%와 19.2%로 가장 높았고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16.9%씩으로 가장 낮았다. 생협의 마진율은 전국연합회에서 결정된 마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생협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비용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의 경우에 총매출액 약 119억 원이었는데, 카드수수료는 약 2억 원이 지출되어 약 1.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카드수수료가 마진율에 반영이 안 되어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Table 5. Changes of percentage margin

(Unit: %)

	2003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Ave.
Percentage margin	16.9	16.9	18.7	18.3	18.7	18.8	19.2	18.1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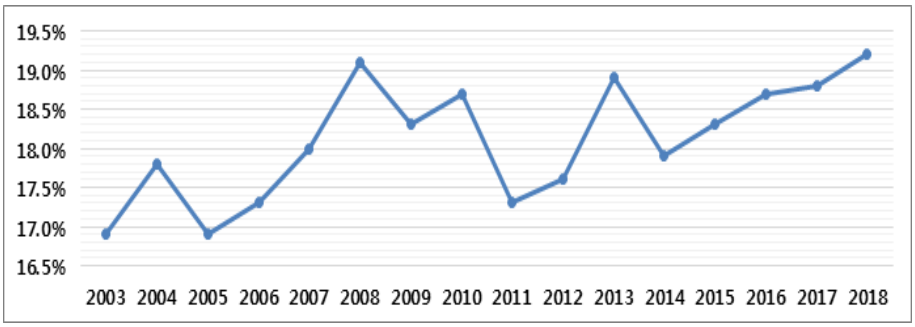

Fig. 6. Changes of percentage margin(2003~2018).

한편, Table 6과 Fig. 7은 조사대상 생협의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당기순수익은 10.8백만 원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약 70백만 원과 82백만 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였는데,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44백만 원과 63백만 원의 적자를 내었다.

Table 6. Changes of net profit

(Unit: million won)

	2003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Ave.
Total sales	2	-44	15	70	82	20	-28	10.8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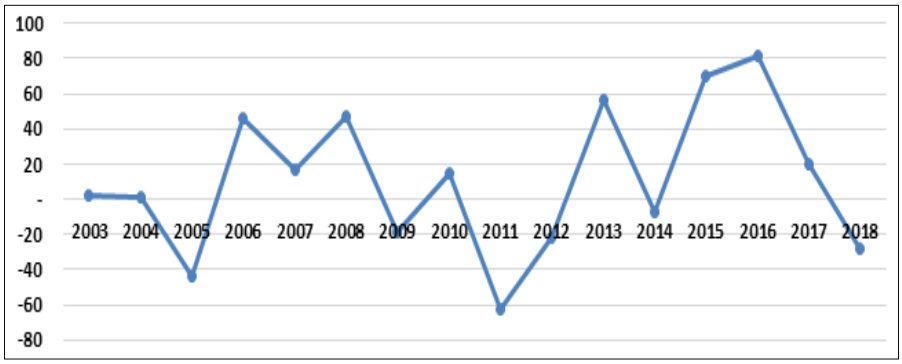

Fig. 7. Changes of net profit(2003~2018).

Table 7은 순매출이익률 및 총자본이익률과 유동비율,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노동분배율, 마진율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순매출이익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노동분배율과 자기자본회전율로서 각각 0.7588과 0.5016이었다. 즉 순매출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총자본이익률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 또한 노동분배율이었다. 마진율과의 상관관계도 중요한 계수를 보이고 있다.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Net return on sales	Return on investment
Current ratio	0.3673	0.2908
Fixed assets turnover	0.0153	0.1484
Net worth turnover	-0.5016	-0.4094
Labor's relative share	-0.7588	-0.7672
Percentage margin	0.4205	0.3154

Ⅳ. 시사점

조사대상 생협에 대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개년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낮은 마진율과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동비율과 유통부채, 고정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이 적절치 않은 수준이었다. 유통 관련 업종의 경영성과는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 생협의 16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10.8백만 원이었다. 생협

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원의 이용에 의해 매출이 이루어지며,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은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경영 참여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실태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안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유동비율을 20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유동비율은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분석기간 중 평균 유동비율은 161.6%이었으며, 200%를 넘는 연도는 2007년~2009년과 2016년, 2018년 5개년이었다. 유동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부채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경영활동성 측면에서는 고정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회전율을 높여야 한다. 고정자산회전율은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정비율이 평균 80.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고정자산회전율은 평균 970.5%를 보이고 있다. 즉 고정설비 운용의 비능률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과대투자로 수익성과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순매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자기자본회전율은 자기자본을 최대로 활용하여 수익성을 얼마나 증대시켰는가를 나타낸다.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64.7%로서 경영안정성은 양호하지만, 자기자본회전율은 평균 747.1%로서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도 순매출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끝으로 수익성에 관한 시사점이다. 조사대상 기간 16개년 동안 평균 당기순수익은 약 11백만 원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 가장 높은 수익을 보였으나, 2005년과 2009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8년 등 적자를 나타낸 연도는 6개년이었다. 순매출을 증가시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성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순매출이익률 및 총자본이익률과 유동비율, 고정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노동분배율, 마진율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순매출이익률과 노동분배율, 순매출이익률과 자기자본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순매출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증가와 인건비의 감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 노동분배율과 마진율은 총자본이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국연합과 마진율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ubmitted, January. 21, 2020 ; Revised, February. 15, 2020 ; Accepted, February. 17, 2020]

References

1. aT. 2018. A Survey on Marketing Channel of Environment-friendly Agri-Products.
2. Hansalim C&A.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3. Kim, H. 2012. Implications and Analyses on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 Consumer's Cooperative.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24(4): 385-391.
4. Kim, H. 2013. A Case Study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1(3): 321-334.
5. KIPF. 2012. Finance Analysi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Online at www.kipf.or.kr). Accessed 11 June 2012.
6. www.naqs.go.kr